

# ‘오리가족’ 정기현 음성군지부장과 형제들의 오리이야기

사진·글 | 이희영 기자

⊗ 4형제와 사촌형제 등 8형제가 오리사육업에 종사  
7남매 중 4형제가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사촌형제들  
까지 합치면 무려 8형제가 오리농장을 하고 있어 화제  
가 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음성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기현 대표(짱구농장) 일가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기현 지부장의 농장인 짱구농장은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위치해 있으며 짱구농장을 중심으로 4형제  
가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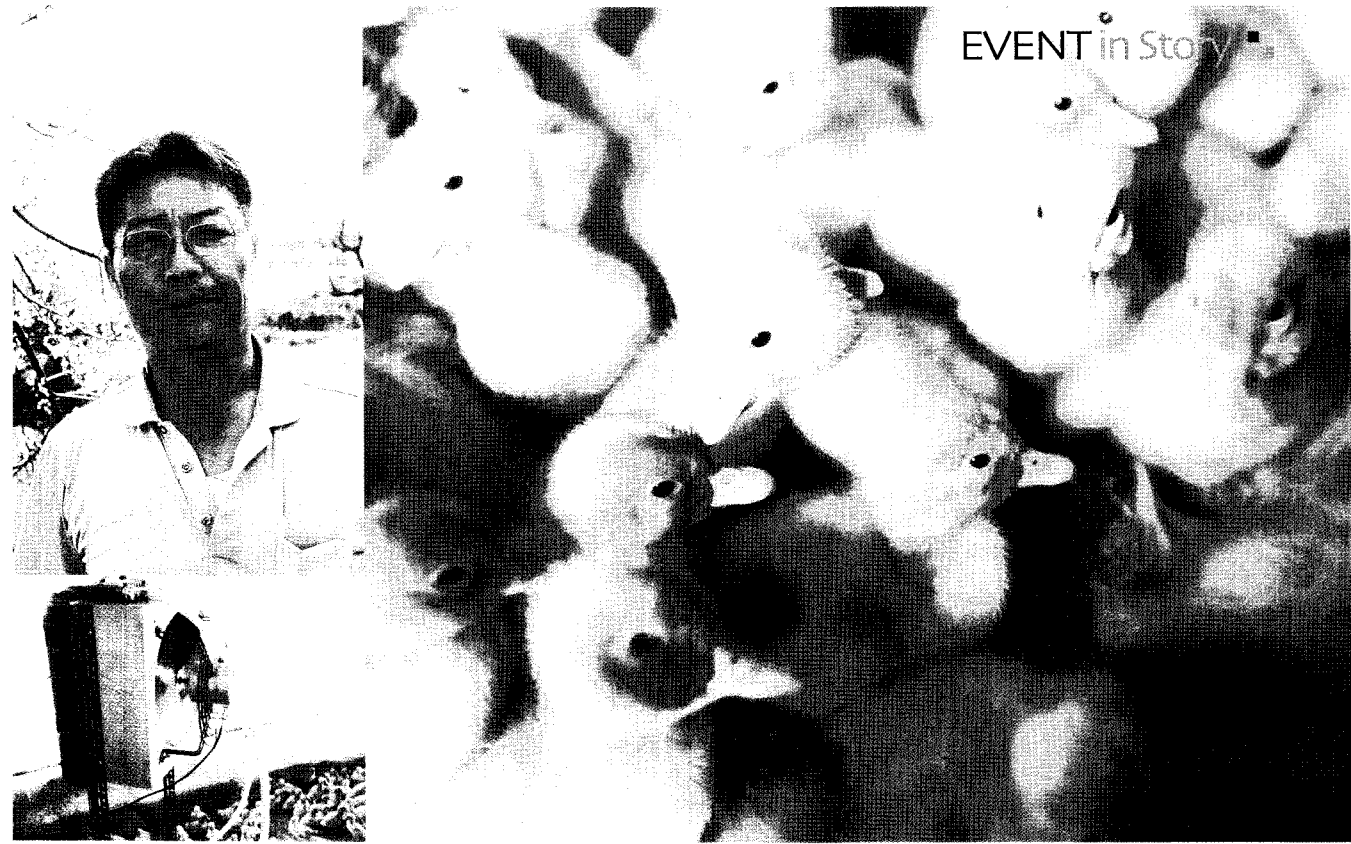
충북 음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심에 바로 정기현 지부장 가족들  
이 있다.

정기현 지부장 형제들 중 가장 먼저 오리업에 뛰어든  
것은 정기현 지부장의 사촌형인 정대현씨로 23년 전  
인 1986년도에 오리 사육을 시작했다.

이 때부터 정 지부장의 사촌형제들은 하나 둘씩 오리  
업으로 투신했으며 당시 정 지부장은 양계농장을 운  
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촌 형제들의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계보다 오리가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 정 지  
부장도 11년 전 오리업으로 전업하기에 이르렀다.

정기현 지부장이 오리업으로 전업한 이후에는 형님인  
정상현씨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6년 전에  
본격적으로 오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에는 동생인 용일씨와 철원씨도 정 지부장의 권유를 받아 오리농장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 정보교류가 수시로 이뤄져 한 발 빠른 대처로 경쟁력 업그레이드

정 지부장 형제들의 평균 사육규모는 1만4천수로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형제들이 모두 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것이 정 지부장의 말이다.

우선 형제들끼리 질병은 물론 새끼오리 상태, 사료 등에 관한 정보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남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리질병이 유행할 경우에도 다른 농장의 경우 한명의 수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지만 정 지부장 형제들은 각기 다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다양한 치료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지부장의 지적이다. 또 깔짚이나 사료가 떨어지는 등 농장에 갑자기 일이 생길 경우에도 형제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다.

특히 정 지부장은 “형제들은 각자 다른 계열사들의 오리를 키우기 때문에 절대 계열사들의 횡포가 있을 수 없다”며 “사료도 각 농장별로 다른 사료를 쓰기 때문에 형제들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사료를 선정해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형제들끼리 의견을 모아 한 계열사 오리를 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며 “만에 하나 오리계열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형제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속 계열사는 모두 다르지만 정보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부당한 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와 함께 신기술도 남들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 EVENT in Story

각 형제들은 농장에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접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며 곧바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줘 그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㉟ 오리사육의 메카 충북 음성군 오리업계를 이끌다

충북 음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음성군을 오리특구로 지정해 오리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건 악화로 인해 갈수록 축산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성군의 오리농장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음성군에는 현재 57개 오리농장이 있으며 해마다 오리농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 지부장의 설명이다. 이 중 40여명이 음성군 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 가장 활성화된 지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음성군내에서도 다른 축종 단체들보다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음성축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지부를 이끌고 있는 정기현 지부장을 비롯해 사촌형인 정상현씨는 충북도지회 고문을 맡고 있는 등 형제들은 항상 지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㉟ 지역 유통업체와 연계 오리고기 홍보에도 적극 참여

음성지역은 오리가 많이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

유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 지부장 형제들도 사육오리 일부는 계열이 아닌 일반 유통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정 지부장의 짚구농장 인근에 위치한 오리유통업체인 '짚구오리축산'은 음성 오리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행사는 물론 외부인들도 자주 찾아오고 있으며 지역 식당에 오리훈제와 양념육을 납품하고 있다.

FTA는 물론 사료값 폭등, HPAI 등 악성질병 등으로 인해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소, 돼지, 닭의 경우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리산업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식품,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한 축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오리산업에 8형제가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오리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일 것이다.

